

2024년 1학기 교양대학 글말교실 글말특강 (3회차)

교강사	오정근	강의제목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
학부(과)	회계학과	학 번	20212817
이 름	최유환		
감상문	<p>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배운 특강이다. 그 중에서why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서 주변 사람과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보다 편하게, 효과적으로 살고 싶으면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이를 삶에서 구현을 시키는 법을 강의 중에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다.</p> <p>우선, 이 특강의 주제를 위해서는 나를 우선 사랑하고, 나 자신과 내면 소통을 잘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보았을 때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조금은 미워했던 기억이 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가 이성과 동성을 불문하고 매력적이지 못하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p>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습관을 자주 들여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사람과 첫 만남을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상대방에 대한 진솔한 칭찬을 통해서 호감 얻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을 때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은 말이 상대방의 호감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복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많은데, 세심하고 사소한 칭찬을 남들에게 자주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사람은 인정욕구가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를 명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려는 다짐을 이 특강을 통해 하게 되었다.</p> <p>마지막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있어서 듣기와 비언어적 표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와 공감한다는 고덕임, 추임새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반응을 잘 해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들을 때도 시선처리, 고덕임, 대답 같은 요소들도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 나는 수업을 듣기 전에도, 듣는 중에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쉽다고 생각했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에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실제 상황에 처하면, 배운 방식대로 말을 못하는 나를 자주 발견한다. 그럴 때일수록, 매뉴얼대로, 공식대로 말을 해보자.</p>		

[기타의견]

말하기에도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강의를 듣고나니, 전략이 가장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이 바뀌었다.